

## 우리 학회가 50살 되는 해에 학회장직을 맞게 되며



제43대(2023년) 회장 **이규호**

1995년 대학에 첫 직장을 잡고 나서 국내 미생물학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던 저에게 교외 학술활동이라고는 몇 학회의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1998년 '한국산업미생물학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학회의 역사와 영문 학술지인 JMB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저는 이때 학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간사(幹事)"라는 직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에 홀린 듯 편집간사의 직무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바로 다음 해 1999년부터 JMB 편집간사를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우리 학회의 첫 인연입니다.

총 2년간 현재의 투고/심사/교정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아날로그"식 편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 사무실 공간은 투고된 논문 원본, 심사 관련 서류, 그리고 재투고된 논문의 수정본들을 담은 봉투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JMB 편집간사님들과는 을지로에 위치한 '한림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매호 출간 전 정기적으로 모여 아침부터 꽤 늦은 시간까지 -많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도- 담당 직원을 붙잡아 두고 논문 교정을 보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소주 한잔하면서 JMB 발전 방안에 대한 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에도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의논을 하고 있자니 묘한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함께 하며 업무를 보았던 편집간사인 김건수 교수님과 이철훈 교수님께서 추후 학술지편집위원장직을 맡아 JMB 발전의 동력을 계속 키울 수 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2년간의 편집간사 업무 이후에도, 저는 운 좋게도 우리 학회에서 국제간사(2001년), 학술간사(2003년), 재무간사(2005년), 총무간사(2006년) 직을 수행할 기회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간사장을 맡게 되면서, 김응수 교수님 그리고 김필 교수님 등과 함께 역대급 "드림팀"을 꿈꾸며 -사실 모든 간사장은 자신의 간사진을 드림팀이라 칭하긴 합니다만- 총 28명의 간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우리 간사진들은 당해 연도 학회장 정건섭 연세대 부총장님의 든든한 후원 아래 참으로 신명나게 학회업무에 보았습니다. 그 흥겨움에 겨운 몫은 당해 연도 학술대회 엠블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문지편집간사 이외에도 “예술(아트)간사”란 별칭을 겸한 이동우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아직도 제 사무실 책장에 위치한 학회감사패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합”한 작품입니다. 우리 간사진들은 당해 연도 ‘메르스’ 창궐에도 불구하고 학술발표 건수 및 참가자 수 경신을 기록한 학술대회를 경주 하이코에서 치렀습니다. 그 당시 흥행했던 영화 중에서 왜군과의 전투를 앞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기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참 무모했다”라는 지적에는 그저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 재무간사 김지현 교수님의 맹활약에 힘입어, 우리 간사진은 ‘학회 사무실 확장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이 기금(약 6,000만원)을 시작으로 2년 후 넓직한 회의실을 구비한 현재의 학회사무실로 이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대형회의실을 빌려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학회 보직인 학술지편집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술지편집위원회는 국문지 MBL과 영문지 JMB 모두를 아우르는 조직이었는데, 전 학술지편집위원장님 중 서강대 이정국 교수님께서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두 학술지의 특성화 및 차별화(참고자료 2)’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해 연도 학술지편집소위원회(참고자료 3)에서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 학회의 편집국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현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이원화’라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본 안을 의결하여, 2019년도부터 MBL편집위원장은 이동건 교수님이 맡는 체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JMB편집위원장직을 맡아 JMB 편집간사님들(참고자료 4, 5)과 함께 편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종 저에게 첫 간사직이었던 1999-2000년도 영문지편집간사 때의 경험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간사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 심사과정에서의 간간함, 편집자 풀 구성에서의 전문성, 논문의 인용 확장 전략에서의 다양성 및 치밀함, 논문 형식 및 홈페이지 구성에서의 미적 감각 등 위원장인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3년도 학회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2015년 간사장으로서 정기 총회와 학술대회를 진행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같은 장소에서 우리 학회의 50주년 해의 학회장으로 당선되어 더욱더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간사장은 생명연 김명희 박사님으로, 우리 학회의 50년 역사에 있어서 첫 여성 간사장입니다. 이러한 간사장께서 현재(이 글을 작성 중인 2022년 10월 기준) 구성 중인 간사진도 여러 측면에서 “역대급”이라 평가합니다.

학회라는 단체가 수행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경우 정관 제1장 1조에 명기된 설립목적,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공)학, 생명공학 및 관련 융합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보급하며 나아가 이들의 학술과 기술의 진흥으로 산학협동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에 잘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집행부는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께서 '학술, 회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및 공헌'이라는 기준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일구어 놓으신 반백년의 학회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라는 울타리가 우리 모두에게 재미있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특히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참고자료 6)라는 함석헌 선생의 시 중 일부입니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뒀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들을 소개받아 만나고, 그들과의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품위와 믿음을 갖고 의지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터가 학회라는 울타리 안이며, 이러한 울타리의 수준 및 크기는 소속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목록:

- (1) 2015년도 간사진: 총무간사 김응수 교수님; 재무간사 김지현 교수님; 학술간사 김필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조장찬 교수님, 김동명 교수님; 국제협력간사 김명희 박사님, 배진우 교수님; 영문지편집간사 반응선 교수님, 채종찬 교수님, 이정걸 교수님, 박용철 교수님; 국문지편집간사 이동우 교수님, 박윤경 교수님, 명진종 교수님, 이형재 교수님; 소식지편집간사 성봉현 박사님, 최윤이 교수님, 강효정 교수님, 이나리 박사님; 산학

연합동간사 이상준 박사님, 정원희 교수님, 최종현 박사님, 조성학 박사님; 홍보조직간사 윤상선 교수님, 서태근 교수님, 한상욱 교수님, 서영수 교수님.

- (2)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40년사” 제6장 6항. ‘학술지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484-487쪽 (2013년) 40년사 편찬위원회.
- (3) 2018년도 학술지편집소위원회: 국문지편집간사 김옥빈 교수님, 이창로 교수님, 박미경 교수님, 김군도 교수님; 영문지편집간사 정원희 교수님, 이상준 교수님, 이동우 교수님, 명진종 교수님, 윤현진 교수님.
- (4) 2019년도 JMB편집소위원회: 선임 정원희 교수님, 이동우 교수님, 이상준 교수님, 명진종 교수님, 윤현진 교수님.
- (5) 2020년도 JMB편집소위원회: 선임 이동우 교수님, 이상준 교수님, 명진종 교수님, 정희곤 교수님, 박희수 교수님.
- (6) 함석헌 저작집 “수평선 넘어” (2009년) 한길사.